

#1

‘넥스트 포털’ 시대를 맞이한 생성 AI 선도 기업의 자세



글. 이세영 쿼트테크놀로지스 대표



지난 3월, 빌 게이츠는 자신의 블로그에 “The Age of AI has begun(AI 시대가 열렸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일생 동안 혁명적인 인상을 받은 두 가지 기술 시연을 보았다”라고 밝히면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raphical User Interface, GUI)와 ‘생성 AI(Generative AI)’를 손꼽았다. 또한 “AI가 사람들이 일하고, 배우고, 여행하고, 치료받고, 서로 소통하는 방식을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빌 게이츠가 말한 것처럼 생성 AI는 사람과 기계의 소통 방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가히 인터넷과 모바일의 연결을 넘어 이를 합한 것보다 더 큰 기술혁명이다. 과거에는 인간이 구체적으로 초기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개념을 그린 뒤 이

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받아 결과물을 만드는 형태였다. 그렇지만 생성 AI가 나온 이후에는 초기 아이디어의 개념화부터 기계와 협업할 수 있게 됐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아도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덕분에 기존 지식·창작 업무에서도 큰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났다. 단순한 업무는 생성 AI에게 맡기고, 인간은 창의성에 집중하면 더 큰 생산성 향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많은 기업이 GPT로 텍스트 생성, 요약, 번역, 원고 분석 등 다양한 서비스에 접목해 활용 방안을 찾고 있다. 가령, 미디어 분야에서는 생성 AI로 기사 요약을 자동으로 생성하거나 마케팅 분야에서는 감성 분석으로 소셜 미디어에서 기업 브랜

그림 1. 채팅으로 사용자의 AI 생성 경험을 더 쉽고 똑똑하게 도와주는 '뤼튼 플랫폼'



그림 2. 뤼튼 플랫폼은 플러그인 기술을 바탕으로 외부의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드의 평판을 분석한다. 또 교육 분야에서는 최신 논문을 분석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전달하거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올려야 하는 크리에이티브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이처럼 생성 AI가 지식, 창작 업무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나 몇 가지 문제점도 내재되어 있다. 예를 들어 현존하는 생성 AI 기술의 원천인 '초거대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은 인종, 성별, 성적 지향성, 언어, 문화 등에 관한 유해 언어 또는 편향된 콘텐츠를 포함할 수 있는 공공 데이터를 통해 훈련됐기 때문에 결과물 자체가 부적절할 수 있다. 또한 많은 생성 AI 서비스가 오픈AI의 ChatGPT만 활용하거나 특정 단일 언어 모델만을 활용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결과물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뤼튼테크놀로지스(이하 뤼튼)는 생성 AI 열풍이 불기 이전부터 이런 문제를 예상하고, 해결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노력해 왔다. 특히 유저 데이터를 계속해서 확보해 이를 모델의 개선으로

그림 3. 비즈니스 문서 작성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을 위해 출시한 '뤼튼 도큐먼트'



그림 4. 지원 시기에 맞춰 다양한 지원사업용 템플릿을 제공한다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오퍼레이팅 영역'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그 일환으로 문서 작업을 비롯한 생성 AI에 특화된 여러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최고의 결과물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채팅으로 더 편하고 똑똑해진 AI, 뤼튼 플랫폼

뤼튼은 2020년 초부터 구글에서 공개한 'BERT(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s)'이나 오픈AI의 GPT-2와 같은 비교적 낮은 성능의 모델을 응용해 작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했다. 이러한 경험은 생성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했을 때 누구보다 선도적으로 생성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동력이 됐다.

현재 뤼튼 플랫폼은 오픈AI의 ChatGPT(GPT-3.5, GPT-4)와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스태빌리티시의 '스테이블 디퓨전' 등 다양한 최신 언어 모델과 자체 수집한 언어 데이터를 활용해 개발됐다. 채팅으로 원하는 글쓰기 주제를 입력하면 뤼튼

그림 5. 하루 15분 글쓰기를 통해 사람들의 사고력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주는 '뤼튼 트레이닝'



이 최적화된 언어 모델을 활용해 초안을 생성해 준다. 가령, 이를 통해 “엑셀 수식을 알려줘!”, “블로그 글을 써줘!” 등을 입력하면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상황에 최적화된 결과를 생성할 수 있다.

특히 생성 AI 사용법을 몰라도 뫼튼 플랫폼에 접속하면 누구나 쉽게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편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 ‘AI 질문 제안’, ‘자주 쓰는 질문 저장’ 등 각종 편의 기능을 이용해 사용자가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친절하고 똑똑하게 안내해 준다. 마치 운전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듯이 사용자가 첫 질문만 입력하면 원하는 결과까지 추천해 준다.

최근 뫼튼 플랫폼은 신규 업데이트를 통해 AI 챗봇 서비스 ‘챗 뫼튼’과 50여 가지 툴을 갖춘 콘텐츠 생성 기능을 일원화했다. 또한 아직 생성 AI를 경험하지 못한 사용자들을 위해 뫼튼 플랫폼의 주요 기능인 ‘GPT-4 대화’, ‘이미지 생성’, ‘실시간 정보 검색’ 등을 모두 무제한 무료로 공개했다.

GPT-4는 ChatGPT의 기본 모델인 GPT 3.5보다 성능이 더 좋지만, 월 20달러(한화 약 2만 7,000원)를 내고도 일일 대화 숫자가 제한되어 있었다. 뫼튼은 누구나 더 좋은 생성 AI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유/무료 가입자 구분 없이 모두 무료로,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저작권 걱정없이 상황에 맞는 이미지를 무료로 얻을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뫼튼 플랫폼 채팅창에 ‘~ 그려줘!’ 또는 ‘Draw~’라고 입력하면, 한 번에 네 장씩 무제한으로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으며, 미국의 유명 생성 AI 기업 ‘스테빌리티 AI’ 기술을 적용했기 때문에 고품질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그림 6. 세계 최대 ICT 전시회 CES 2023에서 뫼튼을 설명하는 이세영 뫼튼테크놀로지스 대표



무엇보다 무료로 제공하는 ‘실시간 정보 검색’으로 2021년까지가 아닌, 실시간 정보를 뫼튼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팅창에 ‘!’를 붙인 채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면, 로또 당첨 번호부터 날씨, 뉴스, 스포츠 결과까지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바로 찾아 준다.

마지막으로 상반기에는 플러그인 기능을 통해 외부의 다양한 일상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데이터를 추가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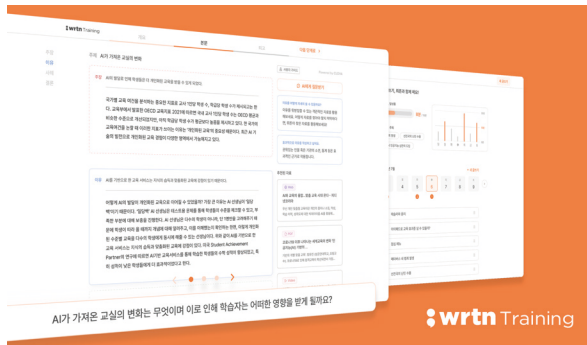
AI로 쓰는 기업 비즈니스 문서, 뫼튼 도큐먼트

뫼튼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비즈니스 문서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많다는 걸 발견했다. 그래서 생성 AI 기술로 기업들의 ‘페인 포인트(Pain Point)’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를 고민했고, ‘뫼튼 도큐먼트’를 출시했다.

뫼튼 도큐먼트는 사업계획서와 보고서 작성과 같은 업무 문서 초안 작성을 돕는 서비스이다. 뫼튼 오픈AI의 GPT-3.5,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등 초거대 생성 AI 언어 모델들을 활용해 개발됐으며, ‘데이터 바우처 사업계획서’,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그리고 ‘창업성장기술개발’ 등 지원 시기에 맞춰 다양한 지원사업용 템플릿을 제공한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인 등 일손이 부족한 소규모 스타트업의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초안 완성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했으며, 각종 보고서나 보도자료를 수시로 작성하는 대기업과 정부 기관까지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템플릿을 마련했다. 특히 전문적인 글쓰기를 위한 서비스를 기획해 실무자들의 실제 업무 프로세스에 최적화했다.

그림 7. AI와 질문을 주고받으며 자연스럽게 글쓰기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인간의 사고력을 증진하는 AI, 뤼튼 트레이닝

‘뤼튼 트레이닝’은 단순히 생성 시로 결과물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글쓰기를 통해 사람들의 사고력을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사고력 증진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다른 사람과의 토의라는 결론에 도달했고, 이를 생성 AI 기술로 해결하기 위해 뤼튼 트레이닝을 개발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의 전자제품 전시회 ‘CES(The International Consumer Electronics Show) 2023’에서 혁신상을 수상할 정도로 생성 AI 활용 기술을 인정받았다.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AI와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글쓰기 능력을 향상하는 뤼튼 트레이닝은 사용자가 주제에 관련된 채팅을 남기면 이를 토대로 생성 AI가 적합한 질문을 제공한다. 이를 정해진 틀에서 반복적으로 진행해 최종적으로 쓰고 싶은 주제의 글을 완성하는 게 서비스의 목적이다. 특히 글의 자동 완성이 아닌, 입력한 핵심 주제에 기반한 질문들을 생성 AI가 계속 제공해 글쓰기 훈련을 할 수 있는 것이 뤼튼 트레이닝의 특징이다. 또한 생성 AI가 주제에 관한 자료를 학습해 최적화된 검색어, 검색 질의 등을 생성해 사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더 자세히 검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생성 AI만이 할 수 있는 비즈니스의 시작

너도나도 생성 AI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지만, 관건은 수익화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뤼튼은 생성 AI의 응용 및 사업화에 있어 앞서 언급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생성 AI를 실제 사용자가 쓰는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해 더 좋은 언

그림 8. “유럽에도 빨리 서비스를 출시해달라”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해외 기업의 많은 관심을 받은 ‘뤼튼’



어 모델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간자 역할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특히 생성 AI 시장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생성 AI만이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출현이 예상되고 있다. 급변하는 생성 AI 생태계에서 살아남고, 이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을 온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창작 업무에서 생성 AI가 미치는 영향력은 갈수록 늘어날 것이며, 이를 통해 아무것도 없는 제로 베이스에서 더 빠르고 좋은 ‘1’을 만들어 내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향후 2~3년간 생성 AI 서비스가 많이 나오겠지만, 누구보다 빠르고 자유롭게 생성 AI 생태계를 선도할 수 있는 뤼튼이 되기를 기대한다.

...	저자소개	↗
<p>이세영 뤼튼테크놀로지스 대표는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출신으로 ‘한국청소년 학술대회(KSCY)’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를 창업했다. 세계 최대 ICT 전시회 CES 2023에서 AI를 이용한 글쓰기 서비스 ‘뤼튼 트레이닝’으로 혁신상을 받았으며, 현재 자체 플러그인 기술로 외부의 다양한 일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인원 AI 플랫폼 ‘뤼튼’의 상반기 업데이트를 준비 중이다.</p>		